



기아로 '교통체계 개선공사' 광주시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북측 기아로 일대 '교통체계 개선공사'가 최근 시작했다. 광주시는 2억9천만원을 들여 내년 1월 초까지 210m 구간

불법 간판 정비 75억 투입

광주시, 2010년까지 단계별 추진 시범거리 조성·범시민 운동 전개

광주시가 도시경관을 해치는 간판을 아름답게 고치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75억원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4일 "불법 간판정비, 간판 시범거리 조성, 간판문화개선 시민운동" 등을 골자로 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매력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내년 1월 추진단 구성을 시작으로 총 사업비 75억3천300만원을 들여 201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시는 6만1천 500여개의 불법 간판 가운데 30%를 우선 정비하고, 간판 시범거리를 10개소 조성하며, 간판문화개선 범시민 운동을 전개한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간판문화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간판 문화개선 계획 검토와 사업추진을 맡긴

다. 추진단에는 학계,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며 간판 시범거리 지정, 아름다운 간판상 선정 및 시상 등을 담당한다. 시는 또 대학교수, 변호사, 시의원 등이 참가하는 조례제정팀을 만들어 간판문화진흥 조례를 제정,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한다. 시는 조례에 정기적으로 간판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방안, 간판시범거리 조성과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시는 자치구별로 2곳씩을 추천받아 2010년까지 국·시비 60억원을 들여 간판 시범거리 10곳(5km)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크고 화려한 간판을 선

호하는 업주들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고, 아름다운 간판 모델을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불량 간판으로 판정된 6만1천 500개의 간판 가운데 30%를 오는 2009년까지 철거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2008년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식에 맞는 간판으로 고쳐 달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09년부터 강제이행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가 지난 11월 전수조사를 한 결과 광주시내 10만9천여 개 간판 가운데 56.2%인 6만1천500여 개가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간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간판은 도시의 얼굴로, 좋은 간판은 도시경쟁력을 높인데 기분이 된다"며 "2010년까지 민주·평화·인권·국제 도시 광주에 걸맞게 간판이 아름다운 매력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지역 공기업 중 처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지역 공기업 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산업안전관리 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4일 ▲무재해

135만 시간 달성 ▲지하철 사고 제로 등 공사의 안전성을 인정해 광주 도시철도공사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수여했다. 이 인증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

책 내용이 반영되고 세부 실행지침과 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 개선하는 등 재해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기업 등에 주어진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기존 지도·감독식과 피동적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인적위험 스스로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 하는 국제적 수준의 선진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제1회 도시마케팅 대상’ 박광태 광주시장

“국제 이벤트로 광주 브랜드 가치 높일터”

“요즘 세계 유명도시들은 도시마케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2013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2010 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 대회 유치 등을 통해 광주를 세계에 알리고, 광주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투자유치도 하는 도시마케팅을 내년부터 한층 강화할 생각입니다.” 최근 ‘한국마케팅 관리학회’가 주는 ‘제1회 도시마케팅 대상’을 수상한 박광태 광주시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2013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총력을 기울이고 여수세계엑스포의 성과공유를 위해 광주~여수 고속도로와 철도 신설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본격적인 도시마케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려면 공직자는 물론, 기업인, 대학관계자, 체육인 등이 모두 나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2009 광엑스포를 계획하고 있는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엑스포는 광산업 2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3 단계사업을 시작하면서 갖게 되는 행사입니다. 엑스포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동방의 등불’로서 인류의 미래·평화·희망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며, 광주는 기존의 ‘의향(義鄕)과 예향(藝鄕)과 미향(味鄕)’의 이미지에 더하여, ‘빛’을 상징하는 빛고을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가 세계적인 광산업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우리나라를 2010년 세계 5위권의 광산업 선진국으로 진입시킬 기폭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등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행사장에 대한 검토와 다른 엑스포 개최사례도 조사·분석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준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수시로 의견을 듣고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로 ‘마케팅 경영’

박 시장은 특히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만든 도시마케팅 본부를 앞세워 대규모 국제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와 해외시장 개척, 투자 유치 등 적극적인 마케팅 경영을 펼쳐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의 유명도시들이 도시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제1회 도시마케팅 대상을 수상했는데. ▲한국마케팅 관리학회가 저를 ‘제1회 도시마케팅 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것 감사하며, 광주시가 과거 수십 년 동안의 침체와 낙후의 오명에서 벗어나 좀 더 단단한 도시와 문화수도로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성과를 크게 평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42만 시민들께서 상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

제1회 도시마케팅 대상을 수상한 박광태 광주 시장이 4일 “광주가 세계 유명도시들과 당당히 겨룰 이길수 있도록 201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대규모 국제 이벤트를 유치하면서, 광주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터”고 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 세계박람회 적극 지원

-여수 세계 박람회 유치와 관련 성과를 공유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유치를 환영하며, 142만 광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평소 광주와 전남은 하나이며, 전남이 잘 살아야 광주가 잘 살 수 있고, 광주가 잘 살아야 전남이 잘 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 여수 박람회 유치는 광주와 전남이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주역으로 상생 발전하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입니다. 광주시도 ‘2012 여수 세계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 박준영 전남지사와 상의해 광주~여수 간 고속철도 건설, 광주~여수 간 철도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광주가 여수 세계 박람회를 지원하는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전에 건립 되도록 하고, 여흥산 관광단지 개발과 특급호텔 건립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광주비엔날레 등 광주를 대표하는 국제행사와 지역축재행사를 여수 세계 박람회 기간에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등 여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광주를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할 것입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2013 유니버시아드·2010 유네스코 대회 유치

광주~여수 고속도로·철도 신설 정부에 건의

합니다. -내년에도 도시마케팅을 위한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1세기 글로벌 시대는 도시의 위상과 이미지가 자체가 상품이 되고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내년부터는 국제 스포츠 대회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등 단기간에 광주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마케팅 전략과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특색 있고 매력 있는 도시환경과 경제 산업, 문화 관광 등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종합적인 도시마케팅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2009년의 광(光)엑스포와 빛의 축제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2010 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와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여 전 세계에 첨단산업과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확고히 심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찾고 싶고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광주’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계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담과 세계여성평화포럼에 이어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가 나섰는데, 유치전략은? ▲올해 안에 정부 승인이 되면, ‘유치신청서’를 내년 3월까지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FISU)에 제출하게 되며, 내년 초에 정세, 관계, 학계, 체육계 인사 등을 망라한 200여명으로 범국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광주만의 독특한 홍보 전략을 마련, 유치경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구의 경우 200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세계육상대회를 유치하는 등 도시가 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이 대회를 유치하

달마가 광주에 온 까닭은? 시흥, 우원, 교반 불타서 힘들어하는 불자들이여... 행운의 무보시 달마도 받아가세요. 행사: 12월 3일~12월 5일 (3일간) 매일 선착순 100명 장소: 광주광역시 광주역 불타서 까닭과 불타서 힘들어하는 불자들이여... (Additional text and images related to the event)